

“집중하는 삶”

요삼1:2

포춘지는 토요타, GM, VW 다음으로 세계 자동차 산업의 4 번째 자동차기업인 르노 니산 CEO 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올해 나이 61 세인 칼로스 고슨(Carlos Ghosn)입니다. 전세계 500 대 글로벌 기업 중에 두 기업인 르노와 닛산의 CEO, 그리고 러시아의 최대자동차회사 AvtoVAZ(아브토바즈)회장으로 있으며 세 회사 모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가 3 개의 세계적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히 원칙대로 단순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있을 때는 닛산에만 집중해서 결정하고, 파리에 있으면 르노를 위해서, 러시아에 있으면 그곳의 회사를 위해서만 집중한다고 합니다. 3 대 기업을 혼자서 운영했지만, 닛산은 작년에 12% 성장했으며, 르노나 닛산의 주식은 3 년만에 50%나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과 단순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목표를 두고 집중과 단순화해야 합니다. 분주하게 살아도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분명한 인생 목표가 없다면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분주하고 바쁜 삶 보다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요삼 1:2)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요한은 주의 일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우는 신실한 가이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복을 사모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믿음 안에 살지 않은 죄악을 먼저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떠난 하나님을 다시 찾아 돌아오는 길 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이 삶의 근본적인 자리를 떠나가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중심으로 모든 삶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재정립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칙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배에 집중하는 삶

현대교회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라고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얼마나 예배자로 살았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한 계시록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은 다른 어떤 말보다도 예배의 중요성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계시록은 온통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끝납니다. 예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도록 하는 통로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설혹 있는 일이 있다고 해도 예배만큼은 반드시 굳건히 붙들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인 로버트 바로(Robert J. Barro) 교수는 세계 60 개국을 20 년간 통계적으로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예배 참석율과 경제적인 삶과는 서로 상호 보완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갈 때 뭔가 답답함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예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들에게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평범한 왕에서 위대한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후였습니다. 솔로몬은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이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삶이 예배로 시작되는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노아도 홍수가 끝이 나자 먼저 한일이 예배 드린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거처를 옮길 때 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였습니다. 청교도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예배 드리기 위해 신대륙으로 건너왔고, 정착하자마자 자기들의 집보다 교회를 먼저 짓고 예배부터 먼저 드렸습니다. 예배하는 민족이나 가정은 항상 승승장구합니다.

2. 기도예 집중하는 삶

성경에도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 7:7)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것과 같다고 했지만 사단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이러한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와 그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도 이 대적자들이 쉬지 않고 막고 못 들어오게 훼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기도했을 때 첫날에 하늘에 상당 되어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오다가 사단의 세력이 막는 바람에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길을 열어주어 21 일 만에 응답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21 일은 집중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제임스 데니는 “하나님 나라는 마음씨 좋은 호인들의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투쟁하는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전쟁 없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불가능에 기도를 통하여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꿈꿀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도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5 장에서 밤중에 친구에게 가서 떡 세덩이를 빌려 달라고 했을 때 ‘벗 됴므로 인함이 아니라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열심히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눅 18 장에도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번거롭게 함으로 그 원한을 풀어주게 됴를 이야기하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지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않겠느냐고 말씀 하십니다. 기도의 생활로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30 배 60 배 100 배로 수확할 것입니다. 기도한 것은 응답됩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분명히 응답됩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자마다 거절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해답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3.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

인생의 참 성공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한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 받아 가셨는데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동네의 여자 죄인 한 사람이 따라오며 주님의 발 위에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그 여인은 머리채를 내려 눈물로 얼룩진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위에 자신이 귀하게 간직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자 함께 와 있던 동네 사람들은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이면 이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줄을 아시고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할 텐데 예수님은 진짜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주인을 부르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질문할 것이 있다. 여기에 빛을 진 사람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 백 데나리온, 또 다른 한 사람은 5 십 데나리온 빛을 켜다. 두

사람이 다 그 빛을 갠지 못하므로 탕감을 해준다면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대답했습니다. ‘물론 많이 탕감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로 닦고 끊임없이 내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런데 내가 들어올 때 너는 나의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도 아니하고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나를 많이 사랑하므로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느니라”라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은혜에 감사하면 헌신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면 그 대상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삶을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새롭게 모든 것을 정립하여 미지의 세계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순서입니다. 올해는 영혼의 문제를 가장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먼저 예배자와 기도자로서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께 모든 삶이 집중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새롭게 희망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원칙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또 다시 한해만 지나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이 올해는 복되고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언급한 중요한 영적 법칙을 숙지하여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2015 년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풍성한 감사로 임하고 경험되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각자의 삶의 우선 순위를 5 순위까지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순위를 통하여 드러난 내 삶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영역에서 보강해야 하는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3.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응답 받은 경험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4. 당신의 최근 예배는 어떠합니까? 예배 승리, 인생 승리를 경험한 적과 그 반대의 경험들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5. 2015 년 한 해 동안 (각자의 삶 속에서) 단순화 시키고 집중해야 할 영역은 어디이고, 과감히 버려야 할 영역은 어디인지 서로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6. 2015 년의 신년기도제목을 나누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합니다.